

■ 시·도교육청의 외교·국제고 고입 영어 내신 성적 절대평가 전면 도입방침에 대한 환영보도(2017.04.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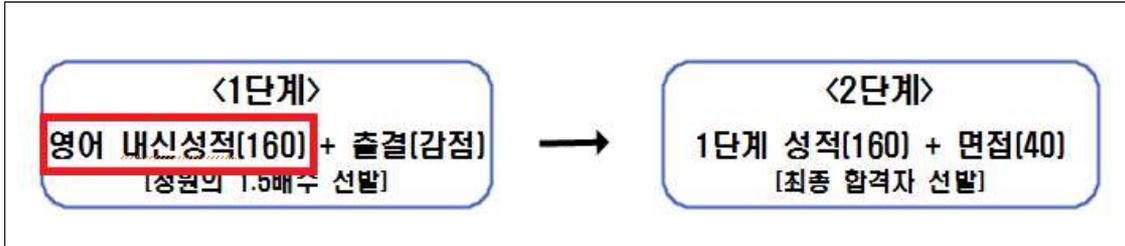
2019년 전국 외교·국제고 입시부터, 3학년 영어 내신도 성취평가제(절대평가)로 반영됩니다.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로 환영합니다.

- ▲ 전국 각 시·도교육청은 최근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통해, 2019년 전국 외교·국제고 입시부터 3학년 영어 내신성적 반영 방식을 성취평가제(절대평가)로 모두 전환하겠다고 행정 예고함.
- ▲ 현행 외교·국제고 입시는 1단계에서 2, 3학년 영어 내신성적과 출결로 선발하는데, 2학년 영어성적은 성취평가제로, 3학년 영어성적은 석차 9등급제(상대평가)로 다르게 반영하였음.
- ▲ 이미 2012년부터 중학교에서는 성취평가제가 전면 실시되고 있었지만, 외교·국제고 고입 전형에서 3학년 영어 과목의 상대평가 성적을 요구하고 있었던 상황임.
- ▲ 이에 따라 외교·국제고 등의 입시에서 상대평가 내신이 필요한 소수 학생들의 1등급 변별을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영어 시험의 난도를 높이는 등 중학교 3학년 영어 교육의 파행이 일어나고 있었음.
- ▲ 이번 행정 예고대로 외교·국제고 입시에서 3학년 영어 성적 또한 성취평가제로 반영된다면, 왜곡된 중학교 3학년 영어 수업과 평가가 정상화·다양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 그러나 성취평가제가 중학교 모든 학년에 내실 있게 안착되려면, 석차백분율 제도의 폐지와 중학교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 특목고·자사고 고입전형이 개선되어야 함.

최근 전국 17개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2018년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현재 중학교 2학년이 진학하는 2019학년도 고입전형부터 외교·국제고 입시에서 영어성적 반영 방식을 성취평가제(절대평가)로 모두 전환하겠다고 행정 예고했습니다. 현재 외교·국제고의 입시는 [표 1]과 같이 1단계 전형에서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4개 학기의 영어내신 성적을 반영하고 있는

데, 2학년 성적은 성취평가제(절대평가)로 반영하지만, 3학년 성적은 상대평가인 석차 9등급제를 활용해서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 1] 현행 외고·국제고 입시전형 방법



이번 행정예고는 2019학년도 고입부터 외고·국제고 입시에서 2, 3학년 4개 학기의 모든 영어 내신 성적을 성취평가제(절대평가)로만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필요하고 당연한 결정이었습니다. 각 시·도 교육청의 이와 같은 결정을 환영합니다.

[표 2] 2019년도부터 외고·국제고 입시전형 영어 내신 방법 (행정예고)

- 단, 2019학년도 입학전형부터는 중3 내신성적도 성취평가 수준을 반영함. 이 경우 아래의 동점자 선발 기준을 적용함
 - 국어, 사회 과목의 성취도 환산 점수를 3학년 2학기 국어, 3학년 2학기 사회, 3학년 1학기 국어, 3학년 1학기 사회, 2학년 2학기 국어, 2학년 2학기 사회, 2학년 1학기 국어, 2학년 1학기 사회의 순으로 반영하여 선발함

[출처 : '2018학년도 자기주도학습전형 및 고등학교 입학전형평가 매뉴얼', 한국교육개발원 & 17개 시·도 교육청]

■ 이미 2012년부터 중학교에서는 성취평가제가 전면 실시되고 있었지만, 외고·국제고 고입전형에서 3학년 영어 과목의 상대평가 성적을 요구하고 있었던 상황임.

교육부는 이미 2012년부터 중학교 모든 교과에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를 전면 도입하면서 석차 대신 절대평가로 매겨진 등급만을 산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성취평가제는 시험을 통해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교과 성취를 이루었는지를 확인하는 절대평가 방법으로, 그간의 상대평가로 인한 과도한 학습경쟁 유발과 한 줄 세우기를 방지하고 중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평가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여전히 외고·국제고 등의 입시에서는 3학년 영어 성적을 상대평가 성적으로 요구하면서, 절대평가로 매겨진 영어 등급이 다시 입시를 위해 점수로 환원되어 반영되는 현실이었습니다.

학생 선호도가 높은 외고·국제고 고입전형에서 상대평가 내신을 요구하는 것은 중상위권 학생들의 내신 성적 경쟁을 심화시키게 될 뿐 아니라, 변별을 위한 지필식 평가 위주의 교육

수준에 그치도록 중학교 교육을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일선 중학교에서는 외교·국제고 입시를 위한 1등급을 변별하기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영어 시험의 난도를 높이는 등의 파행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도 이번 행정예고의 목적이 상대평가제 적용에 따른 난이도 조정 등 중학교 현장의 부담을 감소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번 행정 예고대로 외교·국제고 입시에서 3학년 영어 성적도 성취평가제로 반영된다면, 왜곡된 중학교 3학년 영어 수업과 평가가 정상화·다양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이번 행정 예고대로 차질 없이 2019학년도 입시부터 반영된다면, 중학교 교육현장에 성취평가제가 3학년 영어 과목에서도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로의 확산 계획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통해 토론과 협력 중심의 수업, 결과보다는 과정을 평가하는 다양한 학교수업과 평가방법의 혁신이 시도되고 있었지만, 3학년 영어 상대평가 성적 반영 고입으로 인해 3학년 영어수업에서는 다시 기존의 수업과 평가방법대로 원상복구 되어 버리는 문제도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중학교 2학년의 고입시점인 2019년부터는 전국 모든 외교와 국제고 입시에서는 영어 내신 성적을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로만 반영하게 됩니다. 이는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너무나 필요하고 당연한 결정이었습니다. 이번 행정 예고로 인해 중학교 교육이 입시에 매몰되지 않고, 미래 사회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들을 수업하고 평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들이 더욱 확산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 그러나 성취평가제가 중학교 모든 학년에서 내실 있게 안착하려면, 석차백분율 제도의 폐지와 중학교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 특목고·자사고 고입전형이 개선되어야 함.

중학교 교육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예고는 이런 변화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만 중학교 성취평가제가 온전히 중학교 전체에서 내실 있게 안착하려면, 석차백분율 제도를 폐지해야 하고, 중학교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 특목고·자사고의 고입전형이 개선되어, 모든 고등학교의 고입 전형이 동일 시기에 진행되는 ‘선지원-후추첨’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성취평가제의 온전한 적용과 제대로 된 중학교 수업·평가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7. 04. 2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은정(02-797-4044/내선번호 503)
소장 안상진(02-797-4044/내선번호 509)